

제6절 조선후기의 사회변동과 광양민란

19세기에 들어서자 조선은 양반 중심의 사회체제가 급격히 이완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1811년(순조 11)에 일어난 이른바 ‘홍경래난(洪景來亂)’은 그 전주곡이었다. 홍경래 등이 서북인의 차별과 세도정권의 가렴주구를 타파하자고 주장하자 지역민들은 크게 호응하였다. 그리하여 가산·정주 등 충청강 이북 10여 개 군현을 점령하며 평안도 일대를 휩쓸었다. 이들은 조선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도모하고자 약 5개월 동안 치열하게 항쟁하였으나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당시 조선사회가 안고 있던 모순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조선은 양반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지만 17-8세기에 이르러 그동안 유지되던 양반중심의 신분제가 크게 이완되었다. 양반 서얼들의 통청운동 결과 양반계층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중인과 평민들의 면역을 위한 신분상승도 가세하였다. 이들이 신분상승 욕구는 때마침 전개되던 농업경영의 발전과 상공업의 발달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 하지만 집권 노론세력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고수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였다. 그들은 세도정치를 더욱 강화하여 지배권력을 소수의 양반가문에 집중시켰다. 그 결과 정치기강이 크게 문란하게 되었으며, 이는 과거제도의 부패와 인사정책의 실패로 귀결되었다. 정치적 부패는 곧 삼정의 문란과 지방행정의 난맥으로 이어짐으로써 민중이 불만은 갈수록 누적되어 갔다. 특히, 삼정의 문란으로 말미암아 이서충과 지방 수령의 담합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부패는 농민층의 격분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결국 농민층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되자 자위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것은 곧 자연스럽게 이른바 ‘민란’으로 분출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1862년(철종 13년) 경상도 진주에서 시작된 농민항쟁은 전라 충청도로 확산되었다. 대개는 이른바 잔반, 즉 몰락한 양반들에 의해 지도된 당시의 농민봉기는 들불처럼 번져갔다. 그리하여 함경도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농민항쟁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특히 삼남지방에서 농민의 저항이 두드러졌는데, 당시 37회에나 농민항쟁이 발생하였다.¹⁾ 그 중에서도 전라도 지방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라도에서 집중적인 수탈이 자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1862년 전

1) 최진옥, 「1860년대 민란에 관한 연구」, 『전통시대의 민중운동』 하, 풀빛, 1981, 376쪽.

라도의 대표적인 농민항쟁으로는 순천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운봉 구례 옥과 곡성 남해 등이 해당된다.²⁾ 하지만 정부는 그 심각성을 깊이 성찰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하였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광양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변란이 발생하였다.

1. 1869년 광양변란

임술년의 농민항쟁이 거세게 남도 땅을 할궤 때에도 광양은 가만히 옆으로 비켜나 있었다. 광양에서는 그 7년후인 1869년에 변란(變亂)이라 할만한 사건이 터졌다. 다음아닌 음력 3월23일³⁾ 수백명의 난민들이 머리에 하얀 수건을 동여매고 손에는 깃발을 들고 총을 쏘며 성안으로 들어와 동헌을 점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⁴⁾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는 아래의 기록을 살펴보자.

전라감사 서상철(徐相鼎)이 광양현(光陽縣)의 적변(賊變)을 계문으로 보고하면서 현감 윤영신(尹榮信)을 파출(罷黜)할 것을 요청하였다. 장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양현 공형(公兄)의 보고에 의하면 군병(軍兵) 수백 명이 하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손에는 기치를 들고 방포하며 성중(城中)으로 들어와 곧바로 동헌을 점령하여 본 현감을 위협하여 글을 내려 인부(印符)와 공진, 군기를 탈취하고자 하였다. 이민(吏民)을 만나면 협박하여 군복을 입게 하였으며, 함부로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 이민들이 대부분 흩어져 버렸다. 적도들은 동헌을 둘러싸고 단단히 성문을 폐쇄하고서 사창(社倉)의 환곡 역시 탈취하는 등 대변괴로서 듣는 사람마다 놀랐었다. 이에 순천부사 유헌(柳峽)으로 하여금 검직시켜 인부와 군기·사환(社還)을 모조리 방어하여 지킬 것을 지시하였다. 오진영(五鎭營)·병영(兵營)·좌수영(左水營)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적도들을 모두 체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앞서 현감 윤영신을 파출할 것을 요청하였다(『일성록』, 고종6년 3월28일자).

위의 글에 보이듯이, 봉기의 주도세력은 광양지역의 농민이나 향반층이 아니라 군병(軍兵) 수백 명이라 표현되어 있다. 더욱이 이들은 현감을 위협하여 인부(印符)와 군기 및 전곡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읍폐(邑

2) 망원한국사연구소, 『1862년 농민항쟁』, 동녘, 1988, p.248.

3) 광양봉기의 날짜를 『추안급국안』에서는 3월 23일, 『일성록』에서는 23일로 적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추안급국안』을 따른다.

4) 이하는 『일성록』(제6책, 고종 6년 3월28일자)과 최진옥, 『1860연대의 민란에 관한 연구』(『전통시대의 민중운동』 하, 풀빛, 1981, pp.393~6)와 박광성, 『고종조의 민란연구』(같은 책, pp.435~8) 및 김양식, 『고종조 민란연구』(『용암차문섭교수화갑기념 사학논총』, 1989)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이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각주를 달지 않을 것이다.



사진2-80 : 1872년 광양읍성 (광양현)

5) 『일성록』고종 6년 3월29일자.

6) 위와 같음.

7) 『일성록』고종 6년 4월1일자와 5월9일자.

8) 『역적회행등국안(逆賊悔行等鞠案)』, (『추안급국안』 29, 아세아문화사, 1983), pp.227~66.

弊)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도 주목된다. 또한 이들은 광양의 주민들을 위협하여 군복을 입혀 끌어들이는 점도 눈에 띄는 내용이다.

이처럼 1869년 광양의 봉기는 일반 농민항쟁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다. 정부의 당국자 역시 이를 「대변괴(大變怪)」라고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여 진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영광군수(靈光郡守) 남정룡(南廷龍)을 광양현 안핵사, 조문현(趙文顯)을 광양현감으로 임명하였다. 아울러 봉기를 일으킨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전라병사 이승연(李承淵)에게 표신(標信)과 병부(兵符)를 내렸다.⁵⁾

이 무렵 윤영신은 광양읍성을 몰래 빠져나와 칠성면(七星面)에서 창솔군(倡率軍) 수천 명을 모집하여 25일밤 반격에 나섰다. 윤영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벼슬아치와 주민 수천 명을 동원하여 이들을 체포하였으며, 인부를 다시 환수하고 광양성을 되찾았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정부는 윤영신을 다시 광양현감에 임명하였고, 전라감사는 그에게 진압의 책임을 맡겼다.⁶⁾

윤영신은 성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부하 4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민가 25호가 소실되었다.⁷⁾ 정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휼에 힘쓸 것을 지시하고, 성을 되찾은 윤영신에게 가좌(加資)의 포상을 내렸다. 아울러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주모자는 서울로 압송하고 도망자를 체포할 것과 연루자의 명단과 진압시 공을 세운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고케 하였다.

결국, 변란을 주도하였던 민회행(閔晦行)·전찬문(田贊文)·이재문(李在文)·권학여(權鶴汝)·강명좌(姜明佐)·김문도(金文道) 등 6명은 서울로 압송되어 엄한 추국(推鞠)을 받았다.⁸⁾ 이 가운데 김문도를 제외한 5명은 모반대역죄(謀叛大逆罪)로 군기시(軍器寺) 앞길에서 능지처사(凌遲處死) 당하였으며, 김문도는 불고지죄(不告知罪)로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의 가산을 적몰하고 집을 부수어 연못을 만들었으며 광양의 읍호(邑號)를 강등하였다.

또한 광양에 간혀 있던 한경삼(韓敬三) 등 44명은 좌수영으로 압송되어 효수되었으며, 김학수(金學守)·정동익(鄭東益) 2명은 섬에 유배되었다.

반면에 남원진사(南原進士) 윤병환(尹秉煥)은 진압시의 공로를 인정받아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다. 또한 이방 김정길(金禎吉), 겸종(個從) 박준홍(朴準弘), 윤경운(尹慶雲), 약정(約正) 김문주(金文周), 포수 김경준(金景俊), 정수천(鄭守天) 등은 사람을 불러모아 진압에 적극 가담한 공로로 첩지(帖紙)가 내려졌으며, 통인(通引) 이우석(李祐奭)에게도 보다 높은 직책이 주어졌다.⁹⁾

이처럼 비록 곧바로 진압되었지만, 이는 이제까지의 농민항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변란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동조자를 규합하고 세력을 결집하여 정부에 도전하는 변혁을 도모하였다. 이들이 동헌에 들어가 현감을 붙잡은 직후 곧바로 인부를 탈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모반대역죄로 처형된 점만 보더라도 이들이 반란을 꾀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869년에 광양에서 변란을 도모하였던 주도 인물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변란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들에 대한 행적은 「역적회행등국안(逆賊晦行等鞫案)」에 상세하게 실려 있으므로 그것을 토대로 표를 작성하였다.

< 표 1 >에 제시된 광양변란의 주도인물을 중심으로 좀더 자세하게 이들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민회행은 광양변란의 핵심인물로서, 광양 출신이다. 그의 부친은 경환(景桓)이며 어머니는 박소사(朴召史)였으나 이미 사망하였고 할아버지는 영규(榮奎)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많았는데 20세가 못되어 의술을 배우는 한편, 천문과 지리학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는 당시의 사회상황에 대하여 불만이 매우 높았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영호남 지역을 편력하며 변혁의 동조자를 규합하였다. 그는 20여 년 동안 영호남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1868년 9월에 전남의 장흥취회를 주도하며 김학원(金學元)을 우두머리로 추대하여 변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후에도 그는 기호지방을 돌며 변란을 모색할만한 요충지를 파악하는 한편, 난세의 피란책을 모색하던 중 이재문 및 최두윤(崔斗允) 형제와 의기투합하였다. 민회행은 이들과 같이 금호도(金湖島)에 출입하며 섬주민 백내흥(白乃興)과도 친분을 맺었다. 처음에 그는 1862년 진주의 농민봉기와 유사한 형태의 변란을 모색하였다. 즉, 각종 읍폐를 교정한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한편, 자금조달은 정원서(鄭元瑞) · 임재성(任在成) ·

9) 『일성록』 철종 6년 6월10일자.



민회행은 광양변란의 핵심인물로서, 광양출신이다.



그는 20여 년동안 영호남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1868년 9월에 전남의 장흥취회를 주도하며 김학원(金學元)을 우두머리로 추대하여 변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전찬문·하동의 김가(金哥) 등에게 맡겼다. 군사적 지휘는 정성칠(鄭星七)에게, 한경삼에게는 광주와 나주 등지에서 탄약 20근을 구입케 하였다.

〈표2-30〉

1869년 광양변란의 주도인물과 행적

이름	나이	출생지(移居)	주요 활동	비고
민회행	44	광양	변혁을 기도하며 영·호남돌며 변란 예정지 파악하며 동조자 규합, 의술 익힘. 전찬문과 이재문을 우익으로 포섭. 1868년 9월 장흥취회시 김학원을 추대. 광양변란의 주모자	능지처사 가산적물 파가지택 (破家逐澤)
전찬문	44	태인(구례)	강호 편력, 하동취회때 가담, 군무총찰(軍務總察)로서 부하 지휘	위와 같음
이재문	27	광양	하동취회때 가담 현감능육 죄수방면 군기탈취 주도	위와 같음
권학여	23	남원	민회행의 우익, 산제시(山祭時) 축문 작성, 무기제조, 군부 검열, 대오 편성	위와 같음
강명좌	41	강진(구례)	변란 모의, 병기를 상여에 숨겨 운반, 장흥취회와 하동취회 가담	위와 같음
김문도	49	강진	강진 현리, 강진취회와 광양변란 불고지죄	참수
한경삼, 유경찬, 허경석, 서일순, 황종민, 정양홍, 이덕필, 김운제, 신명국, 백경유, 전인용, 김득성, 김운필, 김만달, 홍석운, 최수합, 이상언, 김용운, 최인상, 강기방, 신석휴, 박유준, 김응열, 문안철, 김문하, 정재명, 김중관, 진인재, 박영철, 김도성, 전성기, 정지현, 김영일, 임남현, 최두전, 황학용, 이용필, 이달성, 손익대, 김사성, 임치인, 최영길, 윤창문, 정원서			변란 가담 자로 활동	죄수영에 압송되어 효수
김학수			관련자	섬 유배
정동익			관련자	위와 같음
정사순(鄭士順) 최학규(崔學圭)	권치회(權致會)		구례현감이 체포함	

민회행은 1869년 음력 3월18일 30여 명을 데리고 하동장시(河東場市)에서 광양변란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왕래하는 상인들을 끌어들여 70여 명으로 변란세력을 증강하는 한편, 이들을 인솔하여 삼일포면(三日浦面) 우손도(牛孫島)의 최영길(崔永吉)의 집을 점거하고서 소를 잡아 군사를 먹이고 갑옷과 죽창 등은 전찬문 한경삼 최두운 등에게 만들도록 하였다. 또한 거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산제(山祭)를 지내었다. 21일 다시 배를 타고서 초남포(草南浦)에 정박하였다가 23일밤 곧장 광양읍성으로 내달아 총을 쏘며 점령한 것이다. 동헌에 들어간 그는 현감을 협박한 끝에 인부를 탈취하고 군기를 빼앗았으며, 사창의 곡식과 공전을 사용하여 군사를 먹였다. 그 후 순천 공격을 준비하다가 관군에 체포되었다.

이에 앞서 민회행 등은 1868년 음력 9월 강진 병영을 점령하기 위하여 장흥취회(長興聚會)를 주도하였다. 당시에 가담한 주요 인물로는 민회행과 김학원을 비롯하여 이재문, 최두운 형제, 강명좌, 유경찬(劉敬贊) 등 25



민회행 등은 1868년 음력 9월 강진 병영을 점령하기 위하여 장흥취회(長興聚會)를 주도하였다. 당시에 가담한 주요 인물로는 민회행과 김학원을 비롯하여 이재문, 최두운 형제, 강명좌, 유경찬(劉敬贊) 등 25명이었다.

명이었다. 이들은 장례식을 핑계삼아 장흥에서 강진 병영으로 가던 중에 강진의 오리정(五里亭) 주점 부근에서 큰 바람을 만났다. 그들은 상여 안에 군기를 숨겨가고 있었는데, 도저히 거사를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2월 말을 기약하며 각자 헤어졌던 일도 있었다.

전찬문은 태인에서 태어났으나 구례로 이거하였으며,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나 어머니는 윤소사(尹召史)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이나 기술을 익힌 바 없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강명좌와 알게 되었다가 민회행과 연결되었다. 그 역시 민회행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변란에 뜻을 두고 있었다. 그는 강명좌의 집을 출입하다가 음력 3월 17일 하동장시에서 민회행을 만나 회담한 후 광양변란에 적극 가담하였다. 즉, 그는 하동포구에 드나드는 상인들을 위협하여 군사로 끌어들이었으며, 23일 광양읍성을 점령한 후에는 현감 윤영신을 협박, 인부를 빼앗는 일을 주도하였다. 또한 광양변란시 그는 군무를 총찰(摠察)한다고 칭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재문의 부모는 윤규(倫奎)와 유소사(劉召史)로서 그는 광양에서 태어났다. 그는 음력 3월 17일 하동에서 최두운을 만나 가담한 후 주로 군부의 검열과 군기의 접수, 군사 모집 면에서 민회행을 도왔다.

권학여는 23세로서 남원의 오수(葵樹; 현 임실군 오수) 출신이다. 그의 부모는 영헌(永憲)과 이소사(李召史)였으며, 조부는 응(應)이고 외조부는 성기(成基)였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의 가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점으로 보아 비록 경제적으로는 빈한할 망정 어느 정도의 학식을 갖춘 인물로 보인다. 그는 음력 2월에 민회행을 처음 만났으며, 음력 3월에 하동에서 강명좌를 만나 행동을 같이하게 되었다. 그는 민회행의 측근으로 활동하였는데, 우손도에서는 축문(祝文)을 지어 산제를 주관하였으며, 갑옷과 죽창, 깃발 등을 제작하였다. 또한 계획의 수립과 군수 조달 등에 관계되지 않은 바가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그는 광양변란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모사(謀士)라고 할 수 있다.

강명좌의 부모는 달희(達熙)와 박소사(朴召史)였으며, 조부는 휘신(彙信), 외조부는 문환(文煥)이었다. 그는 강진에서 출생하여 구례로 이거하였는데, 민회행과 매우 친하였다. 장흥취회와 광양변란에 모두 가담하였는데, 민회행의 지시를 받아 광양변란을 권유하는 글을 김학원에게 띄운 바도 있었다.

김문도는 강진의 현리(縣吏)로서, 그의 부모는 형기(衡基)와 강소사(姜

召史)였으며, 조부는 시명(時鳴)이었다. 그는 장흥취회와 광양변란의 모의 사실을 알면서도 관가에 알리지 않았다. 즉, 그는 심정적으로는 이들의 변란 모의에 동의한 듯하다. 그는 장흥취회의 주모자인 김학원과 70여 리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장흥사람 이화삼(李和三)의 주선으로 김학원을 수차례나 만난 적이 있었다. 강진 병영을 점령하려 할 때에도 그는 김학원을 도와 20여 명을 알선해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화삼은 김학원의 처숙부(妻叔父)였다. 결국, 김문도는 모반대역죄인을 알리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참수당하였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1869년 음력 3월의 광양변란은 민회행을 중심으로 한 권학여, 전찬문 그리고 진여현(陳汝賢) 등이 일으켰다.¹⁰⁾ 그런데 진여현은 체포되지 않았던 것 같다. 핵심세력은 모두 전라도 사람인데, 변란 장소는 주모자 민회행의 출신지가 광양이라는 점과 그 인근 지역인 하동에서 군사를 모집하게 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주모자들은 20~40대의 나이로서 대부분 청장년층이었다. 이들을 『잔반파락자(殘班破落者)』라고 한 점¹¹⁾으로 보아, 이들의 신분은 몰락양반이었을 것이다. 요컨대, 조선후기의 양반지배체제에 대하여 불만이 높은 청장년층의 몰락양반들이 변혁을 도모하여 봉기한 것이라 하겠다.

민회행은 1868년 음력 9월에 강진의 병영점령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광양에서의 변란을 모색하며 꾸준히 동조자를 끌어모았다. 다음해 음력 3월18일, 하동에서 70여 명을 규합한 그는 먼저 21일 밤 삼일포면 우손도의 최영길의 집에서 가장(家庄)과 기명(器皿), 농기 등을 탈취하고 소를 도살하는 등 군수물자를 준비하였다. 이들은 배 2척에 나누어 타고서 22일 밤 초남포에 들어와 광양읍을 점령할 때까지 머물렀던 것 같다.

23일 밤 민회행 등 70여 명은 광양읍성의 동문으로 들어와 곧바로 군기고를 장악하여 무기와 갑옷을 탈취하여 무장을 한 후 동현으로 내달아 현감을 체포하였다.¹²⁾ 이들은 현감 윤영신에게 온갖 협박을 가하여 인부를 탈취코자 하였다. 그러나 윤영신은 자신의 목을 베더라도 인부를 내줄 수 없다고 끝까지 버티자, 내아(內衙)에 들어가 인부를 기어코 찾아내어 탈취하였다.

당시 민회행과 처음부터 행동을 같이한 사람들은 약 70여 명이었으나, 광양읍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3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민회행은 부하들에게 결코 백성을 살해하거나 재산을 빼앗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데, 과연

10) 『역적회행등국안』(『추안급국안』 29, 1983), p.242.

11) 『일성록』 고종 6년 4월5일자.

12) 이하는 「1066. 순천부사유협첩정」(『용호한록』 4, 국사편찬위원회, 1980, pp.217~9)을 참조.

한 사람도 해치지 않았었다. 다만, 그는 신체 건강한 자는 군정(軍丁)으로 편입시켰으나 노약자나 부녀자는 건드리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사창에 쌓인 곡식을 꺼낸 후 백성들을 불러모아 나누어 주었다. 이때 민회행은 ‘끓주린 백성들을 진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며 가득 모여든 백성들에게 쌀을 3~4되씩 지급하였다. 그 후 이들은 소 한 마리를 잡아 국을 끓이고 쌀 1석으로 밥을 지어서 빙둘러 앉아 식사를 마친 후 곧바로 채무장하였다. 즉, 죽창과 하얀 수건을 버리고서 검은 옷이나 사령(司令)의 옷으로 바꾸어 입었으며, 평량자(平凉子)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민회행은 부하들을 동원하여 성을 순찰시키는 한편, 네 개의 문을 폐쇄하였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건강한 자는 자신이 원하면 병사로 소속시켰다.

이들은 전국 8도의 수만 명이 이번 거사에 호응할 것이며, 본래의 70여 명 중에 50여 명은 매우 용감하고 날랜 무적(無敵)의 군사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성밖으로 나가서 군사를 모집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순천을 점령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1869년 광양의 봉기는 일반 농민항쟁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대변괴(大變怪)」라고 인식하고서 신속하게 진압에 나섰다. 급보를 접한 정부는 영광군수(靈光郡守) 남정룡(南廷龍)을 광양현 안핵사, 조문현(趙文顯)을 광양현감으로 임명하였다. 아울러 봉기를 일으킨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전라병사 이승연(李承淵)에게 표신(標信)과 병부(兵符)를 내렸다.¹³⁾

이 무렵 윤영신은 광양읍성을 몰래 빠져나와 칠성면(七星面)에서 창솔군(倡率軍) 수천 명을 모집하여 25일밤 반격에 나섰다. 윤영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벼슬아치와 주민 수천 명을 동원하여 이들을 체포하였으며, 인부를 다시 환수하고 광양성을 되찾았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정부는 윤영신을 다시 광양현감에 임명하였고, 전라감사는 그에게 진압의 책임을 맡겼다.¹⁴⁾

그런데 민회행 등 변란의 주모자들은 의지만 앞섰을 뿐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군사적 기반이나 조직이 취약하였다. 이들은 하동취회시 30여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얼마후 70여 명으로, 그리고 광양읍성을 점령한 직후에는 300여 명으로

13) 『일성록』 고종 6년 3월29일자.

14) 위와 같음.



사진2-81 : 토평사적비 (윤영신)

증가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그러하다. 더욱이 300여 명 가운데 상당수는 강제로 가담한 경우였다. 따라서 이들은 25일 현감 윤영신의 공격을 받고서 곧바로 무너지게 된 것이다.

윤영신은 성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부하 4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민가 25호가 소실되었다.¹⁵⁾ 정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휼에 힘쓸 것을 지시하고, 성을 되찾은 윤영신에게 가좌(加資)의 포상을 내렸다. 아울러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주모자는 서울로 압송하고 도망자를 체포할 것과 연루자의 명단과 진압시 공을 세운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고케 하였다.

당시 정부에서는 광양 주변의 군현과 병영 및 다섯 개 진영의 병력을 동원하여 이들을 진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례현감 천우현(千禹鉉)은 달아나는 변란세력 20여 명을 추적하여 5명을 체포하였는데, 정사순(鄭士順)·최인상(崔仁祥)·최두천(崔斗天)·권치회(權致會)·최학규(崔學圭) 등이 그들이다. 이 가운데 최인상과 최두천은 죄수영으로 압송되어 효수되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민회행의 경우에는 김문하(金文河)와 함께 순천도호부의 병력에 의해 앵무산(鸚鵡山; 현 순천시 해룡면 소재)에서 체포되었다. 결국, 민회행이 주도한 광양변란은 모의한지 1주일여 만에 진압되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변란을 주도하였던 민회행(閔晦行)·전찬문(田贊文)·이재문(李在文)·권학여(權鶴汝)·강명좌(姜明佐)·김문도(金文道) 등 6명은 서울로 압송되어 엄한 추국(推鞠)을 받았다.¹⁶⁾ 이 가운데 김문도를 제외한 5명은 모반대역죄(謀叛大逆罪)로 군기사(軍器寺) 앞길에서 능치처사(凌遲處死)당하였으며, 김문도는 불고지죄(不告知罪)로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의 가산을 적몰하고 집을 부수어 연못을 만들었으며 광양의 읍호(邑號)를 강등하였다.

또한 광양에 갇혀 있던 한경삼(韓敬三) 등 44명은 죄수영으로 압송되어 효수되었으며, 김학수(金學守)·정동익(鄭東益) 2명은 섬에 유배되었다. 반면에 남원진사(南原進士) 윤병환(尹秉煥)은 진압시의 공로를 인정받아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다. 또한 이방 김정길(金禎吉), 겸종(兼從) 박준홍(朴準弘)·윤경운(尹慶雲), 약정(約正) 김문주(金文周), 포수 김경준(金景俊)·정수천(鄭守天) 등은 사람을 불러모아 진압에 적극 가담한 공로로 첩지(帖紙)가 내려졌으며, 통인(通引) 이우석(李祐奭)에게도 보다 높은 직책이 주어졌다.¹⁷⁾

15) 『일성록』 고종 6년 4월1일자와 5월9일자.

16) 『역적회행등국안(逆賊晦行等鞠案)』, 『추안급국안』 29, 아세아문화사, 1983), pp.227~66.

17) 『일성록』 철종 6년 6월10일자.

이상과 같이 1869년 광양변란은 불과 며칠만에 진압되었지만, 이제까지의 농민항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변란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동조자를 규합하고 세력을 결집하여 정부에 도전하는 변혁을 도모하였다. 이들이 동현에 들어가 현감을 붙잡은 직후 곧바로 인부를 탈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모반대역죄로 처형된 점만 보더라도 이들이 반란을 꾀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광양변란은 읍폐의 시정을 요구하는 농민항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성향의 변혁을 도모한 무장봉기라 할 수 있다. 이를 주도한 세력은 전라도의 몰락양반들로서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모의과정을 거쳐 광양현을 들이쳤던 것이다. 광양읍을 점령한 후에 이들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사창의 환곡을 나누어 주는 한편, 백성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들의 목표는 광양현을 근거지삼아 순천을 점령하여 세력을 확대한 후에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는 일반 백성과 다른 지역의 호응을 얻어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폐정을 개혁하기 위해 정권을 탈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의 모순을 뿌리뽑기 위한 이들의 변혁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1869년 음력 3월 23일에 일어난 광양변란은 1862년 농민항쟁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정치변혁을 지향한 무장봉기라 하겠다. 이들은 농민항쟁의 체험을 통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변란세력으로 성장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광양변란은 이필제란에도 영향을 주었으며¹⁸⁾, 1870~80년대를 전후해서는 그러한 성격의 변란이 자주 시도되었다.

18) 배항섭, 「19세기 후반 '변란'의 추이와 성격」(『1894년 농민전쟁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p.281.


2. 1889년 광양농민항쟁

광양에서 변란이 일어난지 20년후 이번에는 농민항쟁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광양현감 김두현(金斗鉉)의 탐학을 견디지 못한 이방 백지홍(白智洪) 등이 일으킨 것이다. 백지홍은 그의 형을 좌수(座首)로 앉히려다 공금을 축내고서 일이 여의치 않자 주민들을 끌어들여 농민항쟁을 유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감 김두현의 수탈에 따른 향리와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보여진다. 다만, 이들이 항쟁을 일으킨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그저 1889년 음력 9월로 추정될 뿐이다.

당시 광양의 현민들은 공당(公堂)을 부수고 현감을 내쫓았다. 또한 이들은 공전을 탈취하고 인가를 부순 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농성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나주목사 김규식(金奎軾)을 안핵사로 파견하여 난이 일어난 원인을 파악하고, 주모자를 효수한 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결과 주모자인 백지홍은 세 차례의 엄한 형벌을 받은 후에 원악도(遠惡島)에 유배되었으며, 현감을 쫓아낸 박창규(朴昌圭)는 효수당하였다. 또한 현감의 축출을 막지 못한 좌수 김경문(金瓊文)과 호장 박창휘(朴昶徽)도 유배되었다.¹⁹⁾

19) 『일성록』 고종 26년 9월 17일자와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28(국사편찬위원회, 1982, p.427) 고종 26년 12월29일자.

1889년 음력 9월에 일어난 광양봉기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관민간의 불신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현감의 탐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특이한 점은 광양봉기는 향리들이 주도하였고, 그들이 처벌받았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향리들의 선동에 의해 가담하였던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양봉기는 조선말에 일어난 수많은 농민항쟁의 일반적인 성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세도정치의 말기적 현상에 의한 자연스런 농민항쟁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결국, 광양의 봉기는 19세기 말 조선의 농촌 현실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광양은 고종대에 이른바 ‘반란’이 두 차례나 발생한 유일한 지역이었다. 이는, 조선말의 사회적 모순이 가장 잘 응축되었다가 분출된 지역임과 동시에 민중의 역동적인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지역이라 하겠다.

 집필 : 순천대학교 박물관장 홍영기